

●●● 심광경 (주)제일바이오 대표이사

‘선안전 후조업’을 원칙으로 동탑산업훈장 수상



▲ (주)제일바이오 심광경 대표이사

유망 중소기업 (주)제일바이오

전문인이 설립한 동물약품 전문회사 (주)제일바이오는 동물용 의약품을 사료공장과 농장 등에 납품·판매하는 업체이다. 1992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매년 매출의 5%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각종 수입 원료의 수입대체효과를 달성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위탁

노 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이라 지정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공로가 큰 산업안전보건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본고는 지난 3일부터 개최된 ‘제39회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행사’에서 올해의 산재예방유공 정부포상자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제일바이오 심광경 대표이사를 만나 수상소감을 들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고 성공판정 받은 발전적인 기업이다. 1977년 제일화학공업사를 모체로 시작하여 1984년 경기도청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0년 (주)제일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평가 우수기업으로 지정되고, 2003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70여명

의 임직원들이 항콕시뮬제, 가금티푸스 치료제, 고농축 음수전용 생균제 등 생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무재해 10배수 달성 동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1968년부터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 무재해운동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날(매년 7월 1일)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매년 7월 1~7일까지)을 설정하여 지난 3일 '제 39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를 맞이하였다. 이 자리에서 심광경 대표이사는 '선안전 후조업' 원칙으로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자질을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아 산재예방유공 정부포상자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주)제일바이오는 1992년 4월부터 '선안전 후조업'의 원칙을 준수하며 산재사고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무재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5년 9월 무재해 10배수 성과를 달성한바 있으며,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달성 인증패를 수상하였다.

무재해 사업장 만들기

심광경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인화와 인간존중'이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 주고, 산재사고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업장 곳곳을 돌며 재해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의 성과가 이번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 동기라고 언급하였다.



▲ '제 39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에서 올해의 산재예방유공 정부포상자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심광경 대표이사와 (주)제일바이오 직원일동



▲(주)제일바이오 공장 전경

앞으로 무재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무재해 사업장 만들기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없는 회사를 만들고자 사업장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관리감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실천과정 교육을 매년 이수토록 하고 있고, 매월 안전보건대행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해 위험기계기구에는 매년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장내 안전담당요원제도를 두어 각 작업장별 1인씩 정해진 기간마다 안전담당요원이 되어 소속 작업장에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언토록 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전 직원이 안전보건의 책임의식에 적극 참여하여 노사화합은 물론 행복한 가정 및 산재사고 없는 회사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광경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노·사가 협조하여 산재 예방에 힘쓰고, 근로자 각자에게 작업장에서 항상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 산업재해 없는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리 | 장성영 기자)